



모든 성도를 위한 부르심 직업과 선교

손창남 지음 | 150*225 | 240쪽 | 12,000원

| ISBN 978-89-421-0335-5 03230

주문문의 : 김재준 간사 010-7238-9942

작성자 : 홍순원 간사

차례 || 추천사 | 들어가면서 | **1부 직업을 통한 선교는 왜 필요한가?(Why)** | 1장 직업인을 필요로 하는 선교 상황 | 2장 사도행전에 나타난 두 개의 선교 모델 | 3장 애매한 부분에 대한 정리 | **2부 직업과 관련된 다섯 가지 타입의 선교란 무엇인가?(What)** | 4장 직업을 가진 선교사 - 2타입 | 5장 선교사가 된 직업인 - 3타입 | 6장 해외에 있는 직업인 - 4타입 | 7장 국내에 있는 직업인 - 5타입 | **3부 직업 선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How)** | 8장 직업과 증거의 네 가지 타입 | 9장 직업 선교사로서의 나의 여정 1 | 10장 직업 선교사로서의 나의 여정 2 | 11장 선교를 하는 직업인의 자질 | 나가면서

“선교는 선교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OMF 손창남 선교사, 풀뿌리 선교를 말하다!

인도네시아에서 11년간 교수 사역을 하고 2001년부터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OMF 대표를 지낸 후, 지금은 동원 사역을 하고 있는 손창남 선교사의 두 번째 책이 2012년 선교한국 대회를 기해서 출간되었다.

그는 이미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할 당시의 여러 이야기들을 엮어 2008년에 <족자비안 나이트>라는 책을 출간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 특히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전하고 큰 도전을 주었는데, 이번 책에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흩어진 사람들을 모델로 풀뿌리 선교를 이야기하고, 직업과 선교 사이의 다양한 타입을 명쾌하게 풀어나가고 있다. 물론 이 책에서도 저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독자들이 내용을 더욱 실감나게 접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3부로 나뉜다.

- 1부 : 직업 선교사가 왜(Why) 필요한지와 그 배경을 다룬다. 가톨릭교회 이후, 개신교 교회가 지난 500년 동안 선교사를 파송해 온 환경은 오늘날 완전히 바뀌었기에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새로운 환경에 가장 적절한 선교는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직업과 선교의 관계를 다섯 가지 타입으로 정의한다.
- 2부 : 직업과 관련한 선교의 다섯 가지 타입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직업과 관련있는 네 가지 타입(2타입, 3타입, 4타입, 5타입)이 각각 무엇(What)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3부 : 직업과 관련해서 선교를 어떻게(How) 할 것인지를 서술한다. 특히 일과 증거의 관계를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 이미 직업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 그 후 선교사가 되어 인도네시아에서 10여 년간 사역한 저자의 경험을 함께 나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